



### 보성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또 다시 출발선이다. 음유년 새해 새날 앞에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서있다.

새해에는 해야 할 일도 많다. 지난 한해가 힘들었던 만큼 새해에 거는 기대도 크다.

광주에 거주하는 두 가족이 하나같이 큼직한 보따리를 짊어지고 순천 송광사를 찾았다. 새날 시작에 앞서 조계총림 방장 보성 큰스님에게 점괘받기 위해서다.

“어여들 와, 강원 스님들과 율력하다가 여러분들 온다기에 올라 왔어.”

방장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길상헌(吉祥軒)은 송광사 계곡의 물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에 자리해 있다.

두어 평 되는 스님 방에 보덕행 보살 가족과 천달 거사 가족이 들어서자 딱 찬다.

한지로 도배한 벽엔 가사 장삼이 걸려있고, 경상에 스님이 보던 책 서너 권 놓여있을 뿐 단출하기 그지없다.

“새해라고해서 왔나본데 별거 없어. 매일 매일이 정월 초하루야. 매일 조금씩 바뀌지만 되는 거지. 그저 좋은 습관 들이면 돼. 노력하지 않고 요행이나 바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돼. ‘저 사람은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안 풀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뒷면에 있는 노력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지. 여기까지 왔으니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이야기나 들려줄게 들려봐.”

청담 스님이 도선사에 게실 때였어. 하루는 어느 보살이 허겁지겁 절에 오더니 털썩 주저앉으며 땅을 치며 막무가내로 우는 거야. 한참을 울다가 청담 스님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는 거야.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는다는 전갈이 와서 뒤를 따라갔대. 그런데 도시락까지 메고 가던 아들이 학교 옆 골목에 들어가더니 냇가로 바래 입고 나오더라는 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 길에 절에 와서 울었던 거지. 청담 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소연을 했지. 그때 스님이 ‘보살은 뭐하는가’고 물었어. 보살 말이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활동 열심히 한대. 거사는 회사 다니고 살림은 전정어머니가 한다는 거야. 그때 청담 스님이 ‘제 살림도 못하면서 무슨 봉사냐’며 불호령을 내리고 방담

가서 절하라고 했어. 일주일간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기도하라고 했지. 그러면서 공양주 불러놓고 ‘이 보살 밥 먹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누룽지도 줘서는 안된다’고 단도리를 했어. 보살이 그대로 법당에 가서 절을 계속 하는데 옛새를 뒀나 햇것이 보일만도 하지.

기도하던 보살 눈에 왕십리 역이 보이고 냇마아들이 서 있는 거야. 기도 마치고 역에 가니 정말 아들이 있더라네. 엄마를 본 아들이 껍짝 놀라더니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따라와서 잘못을 빌더라. 그래서 사람구실하게 됐지.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운 고비가 있는 것이야. 고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가 중요해. 내가 갈 길을 분명히 찾아서 갈 줄 알아야 해. 냇마아를 구해낸 보살처럼 몸을 돌보지 않고 노력(기도하면 뜻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가 사는 허공에는 그런 예너지가 충만해 있어. 다만 끌어다 쓰느냐, 못쓰느냐는 각자가 할일이지.”

지내놓고 보면 다사다난하지 않은 한해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지난 2004년은 유난히도 힘들었던 해였다. 모두들 “어렵다, 어렵다” 뿐이었다.

“스님, 경제가 어렵다보니 모두들 하루하루 생활에 지쳐갑니다. 먹고살기가 힘들어 작은 일에도 터져버릴 듯 가슴 조이며 살고 있습니다.”

“니를 잘 길들여야 하는 기라. 요즘 사람들 보면 담담스님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는 거야.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는다는 전갈이 와서 뒤를 따라갔대. 그런데 도시락까지 메고 가던 아들이 학교 옆 골목에 들어가더니 냇가로 바래 입고 나오더라는 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 길에 절에 와서 울었던 거지. 청담 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소연을 했지. 그때 스님이 ‘보살은 뭐하는가’고 물었어. 보살 말이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활동 열심히 한대. 거사는 회사 다니고 살림은 전정어머니가 한다는 거야. 그때 청담 스님이 ‘제 살림도 못하면서 무슨 봉사냐’며 불호령을 내리고 방담

가서 절하라고 했어. 일주일간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기도하라고 했지. 그러면서 공양주 불러놓고 ‘이 보살 밥 먹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누룽지도 줘서는 안된다’고 단도리를 했어. 보살이 그대로 법당에 가서 절을 계속 하는데 옛새를 뒀나 햇것이 보일만도 하지.

기도하던 보살 눈에 왕십리 역이 보이고 냇마아들이 서 있는 거야. 기도 마치고 역에 가니 정말 아들이 있더라네. 엄마를 본 아들이 껍짝 놀라더니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따라와서 잘못을 빌더라. 그래서 사람구실하게 됐지.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운 고비가 있는 것이야. 고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가 중요해. 내가 갈 길을 분명히 찾아서 갈 줄 알아야 해. 냇마아를 구해낸 보살처럼 몸을 돌보지 않고 노력(기도하면 뜻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가 사는 허공에는 그런 예너지가 충만해 있어. 다만 끌어다 쓰느냐, 못쓰느냐는 각자가 할일이지.”

지내놓고 보면 다사다난하지 않은 한해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지난 2004년은 유난히도 힘들었던 해였다. 모두들 “어렵다, 어렵다” 뿐이었다.

“스님, 경제가 어렵다보니 모두들 하루하루 생활에 지쳐갑니다. 먹고살기가 힘들어 작은 일에도 터져버릴 듯 가슴 조이며 살고 있습니다.”

“니를 잘 길들여야 하는 기라. 요즘 사람들 보면 담담스님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는 거야.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는다는 전갈이 와서 뒤를 따라갔대. 그런데 도시락까지 메고 가던 아들이 학교 옆 골목에 들어가더니 냇가로 바래 입고 나오더라는 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 길에 절에 와서 울었던 거지. 청담 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소연을 했지. 그때 스님이 ‘보살은 뭐하는가’고 물었어. 보살 말이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활동 열심히 한대. 거사는 회사 다니고 살림은 전정어머니가 한다는 거야. 그때 청담 스님이 ‘제 살림도 못하면서 무슨 봉사냐’며 불호령을 내리고 방담

가서 절하라고 했어. 일주일간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기도하라고 했지. 그러면서 공양주 불러놓고 ‘이 보살 밥 먹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누룽지도 줘서는 안된다’고 단도리를 했어. 보살이 그대로 법당에 가서 절을 계속 하는데 옛새를 뒀나 햇것이 보일만도 하지.

기도하던 보살 눈에 왕십리 역이 보이고 냇마아들이 서 있는 거야. 기도 마치고 역에 가니 정말 아들이 있더라네. 엄마를 본 아들이 껍짝 놀라더니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따라와서 잘못을 빌더라. 그래서 사람구실하게 됐지.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운 고비가 있는 것이야. 고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가 중요해. 내가 갈 길을 분명히 찾아서 갈 줄 알아야 해. 냇마아를 구해낸 보살처럼 몸을 돌보지 않고 노력(기도하면 뜻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가 사는 허공에는 그런 예너지가 충만해 있어. 다만 끌어다 쓰느냐, 못쓰느냐는 각자가 할일이지.”

지내놓고 보면 다사다난하지 않은 한해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지난 2004년은 유난히도 힘들었던 해였다. 모두들 “어렵다, 어렵다” 뿐이었다.

“스님, 경제가 어렵다보니 모두들 하루하루 생활에 지쳐갑니다. 먹고살기가 힘들어 작은 일에도 터져버릴 듯 가슴 조이며 살고 있습니다.”

“니를 잘 길들여야 하는 기라. 요즘 사람들 보면 담담스님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는 거야.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는다는 전갈이 와서 뒤를 따라갔대. 그런데 도시락까지 메고 가던 아들이 학교 옆 골목에 들어가더니 냇가로 바래 입고 나오더라는 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 길에 절에 와서 울었던 거지. 청담 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소연을 했지. 그때 스님이 ‘보살은 뭐하는가’고 물었어. 보살 말이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활동 열심히 한대. 거사는 회사 다니고 살림은 전정어머니가 한다는 거야. 그때 청담 스님이 ‘제 살림도 못하면서 무슨 봉사냐’며 불호령을 내리고 방담

가서 절하라고 했어. 일주일간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기도하라고 했지. 그러면서 공양주 불러놓고 ‘이 보살 밥 먹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누룽지도 줘서는 안된다’고 단도리를 했어. 보살이 그대로 법당에 가서 절을 계속 하는데 옛새를 뒀나 햇것이 보일만도 하지.

기도하던 보살 눈에 왕십리 역이 보이고 냇마아들이 서 있는 거야. 기도 마치고 역에 가니 정말 아들이 있더라네. 엄마를 본 아들이 껍짝 놀라더니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따라와서 잘못을 빌더라. 그래서 사람구실하게 됐지.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운 고비가 있는 것이야. 고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가 중요해. 내가 갈 길을 분명히 찾아서 갈 줄 알아야 해. 냇마아를 구해낸 보살처럼 몸을 돌보지 않고 노력(기도하면 뜻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가 사는 허공에는 그런 예너지가 충만해 있어. 다만 끌어다 쓰느냐, 못쓰느냐는 각자가 할일이지.”

지내놓고 보면 다사다난하지 않은 한해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지난 2004년은 유난히도 힘들었던 해였다. 모두들 “어렵다, 어렵다” 뿐이었다.

“스님, 경제가 어렵다보니 모두들 하루하루 생활에 지쳐갑니다. 먹고살기가 힘들어 작은 일에도 터져버릴 듯 가슴 조이며 살고 있습니다.”

“니를 잘 길들여야 하는 기라. 요즘 사람들 보면 담담스님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는 거야.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는다는 전갈이 와서 뒤를 따라갔대. 그런데 도시락까지 메고 가던 아들이 학교 옆 골목에 들어가더니 냇가로 바래 입고 나오더라는 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 길에 절에 와서 울었던 거지. 청담 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소연을 했지. 그때 스님이 ‘보살은 뭐하는가’고 물었어. 보살 말이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활동 열심히 한대. 거사는 회사 다니고 살림은 전정어머니가 한다는 거야. 그때 청담 스님이 ‘제 살림도 못하면서 무슨 봉사냐’며 불호령을 내리고 방담

가서 절하라고 했어. 일주일간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기도하라고 했지. 그러면서 공양주 불러놓고 ‘이 보살 밥 먹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누룽지도 줘서는 안된다’고 단도리를 했어. 보살이 그대로 법당에 가서 절을 계속 하는데 옛새를 뒀나 햇것이 보일만도 하지.

기도하던 보살 눈에 왕십리 역이 보이고 냇마아들이 서 있는 거야. 기도 마치고 역에 가니 정말 아들이 있더라네. 엄마를 본 아들이 껍짝 놀라더니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따라와서 잘못을 빌더라. 그래서 사람구실하게 됐지.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운 고비가 있는 것이야. 고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가 중요해. 내가 갈 길을 분명히 찾아서 갈 줄 알아야 해. 냇마아를 구해낸 보살처럼 몸을 돌보지 않고 노력(기도하면 뜻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가 사는 허공에는 그런 예너지가 충만해 있어. 다만 끌어다 쓰느냐, 못쓰느냐는 각자가 할일이지.”

지내놓고 보면 다사다난하지 않은 한해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지난 2004년은 유난히도 힘들었던 해였다. 모두들 “어렵다, 어렵다” 뿐이었다.

# 매일 매일이 정월 초하루

가서 절하라고 했어. 일주일간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기도하라고 했지. 그러면서 공양주 불러놓고 ‘이 보살 밥 먹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누룽지도 줘서는 안된다’고 단도리를 했어. 보살이 그대로 법당에 가서 절을 계속 하는데 옛새를 뒀나 햇것이 보일만도 하지.

기도하던 보살 눈에 왕십리 역이 보이고 냇마아들이 서 있는 거야. 기도 마치고 역에 가니 정말 아들이 있더라네. 엄마를 본 아들이 껍짝 놀라더니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따라와서 잘못을 빌더라. 그래서 사람구실하게 됐지.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운 고비가 있는 것이야. 고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가 중요해. 내가 갈 길을 분명히 찾아서 갈 줄 알아야 해. 냇마아를 구해낸 보살처럼 몸을 돌보지 않고 노력(기도하면 뜻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가 사는 허공에는 그런 예너지가 충만해 있어. 다만 끌어다 쓰느냐, 못쓰느냐는 각자가 할일이지.”

지내놓고 보면 다사다난하지 않은 한해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지난 2004년은 유난히도 힘들었던 해였다. 모두들 “어렵다, 어렵다” 뿐이었다.

“스님, 경제가 어렵다보니 모두들 하루하루 생활에 지쳐갑니다. 먹고살기가 힘들어 작은 일에도 터져버릴 듯 가슴 조이며 살고 있습니다.”

“니를 잘 길들여야 하는 기라. 요즘 사람들 보면 담담스님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는 거야.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는다는 전갈이 와서 뒤를 따라갔대. 그런데 도시락까지 메고 가던 아들이 학교 옆 골목에 들어가더니 냇가로 바래 입고 나오더라는 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 길에 절에 와서 울었던 거지. 청담 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소연을 했지. 그때 스님이 ‘보살은 뭐하는가’고 물었어. 보살 말이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활동 열심히 한대. 거사는 회사 다니고 살림은 전정어머니가 한다는 거야. 그때 청담 스님이 ‘제 살림도 못하면서 무슨 봉사냐’며 불호령을 내리고 방담

가서 절하라고 했어. 일주일간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기도하라고 했지. 그러면서 공양주 불러놓고 ‘이 보살 밥 먹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누룽지도 줘서는 안된다’고 단도리를 했어. 보살이 그대로 법당에 가서 절을 계속 하는데 옛새를 뒀나 햇것이 보일만도 하지.

기도하던 보살 눈에 왕십리 역이 보이고 냇마아들이 서 있는 거야. 기도 마치고 역에 가니 정말 아들이 있더라네. 엄마를 본 아들이 껍짝 놀라더니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따라와서 잘못을 빌더라. 그래서 사람구실하게 됐지.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운 고비가 있는 것이야. 고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가 중요해. 내가 갈 길을 분명히 찾아서 갈 줄 알아야 해. 냇마아를 구해낸 보살처럼 몸을 돌보지 않고 노력(기도하면 뜻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가 사는 허공에는 그런 예너지가 충만해 있어. 다만 끌어다 쓰느냐, 못쓰느냐는 각자가 할일이지.”

지내놓고 보면 다사다난하지 않은 한해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지난 2004년은 유난히도 힘들었던 해였다. 모두들 “어렵다, 어렵다” 뿐이었다.

“스님, 경제가 어렵다보니 모두들 하루하루 생활에 지쳐갑니다. 먹고살기가 힘들어 작은 일에도 터져버릴 듯 가슴 조이며 살고 있습니다.”

“니를 잘 길들여야 하는 기라. 요즘 사람들 보면 담담스님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는 거야.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는다는 전갈이 와서 뒤를 따라갔대. 그런데 도시락까지 메고 가던 아들이 학교 옆 골목에 들어가더니 냇가로 바래 입고 나오더라는 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 길에 절에 와서 울었던 거지. 청담 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소연을 했지. 그때 스님이 ‘보살은 뭐하는가’고 물었어. 보살 말이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활동 열심히 한대. 거사는 회사 다니고 살림은 전정어머니가 한다는 거야. 그때 청담 스님이 ‘제 살림도 못하면서 무슨 봉사냐’며 불호령을 내리고 방담

가서 절하라고 했어. 일주일간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기도하라고 했지. 그러면서 공양주 불러놓고 ‘이 보살 밥 먹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누룽지도 줘서는 안된다’고 단도리를 했어. 보살이 그대로 법당에 가서 절을 계속 하는데 옛새를 뒀나 햇것이 보일만도 하지.

기도하던 보살 눈에 왕십리 역이 보이고 냇마아들이 서 있는 거야. 기도 마치고 역에 가니 정말 아들이 있더라네. 엄마를 본 아들이 껍짝 놀라더니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따라와서 잘못을 빌더라. 그래서 사람구실하게 됐지.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운 고비가 있는 것이야. 고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가 중요해. 내가 갈 길을 분명히 찾아서 갈 줄 알아야 해. 냇마아를 구해낸 보살처럼 몸을 돌보지 않고 노력(기도하면 뜻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가 사는 허공에는 그런 예너지가 충만해 있어. 다만 끌어다 쓰느냐, 못쓰느냐는 각자가 할일이지.”

지내놓고 보면 다사다난하지 않은 한해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지난 2004년은 유난히도 힘들었던 해였다. 모두들 “어렵다, 어렵다” 뿐이었다.

“스님, 경제가 어렵다보니 모두들 하루하루 생활에 지쳐갑니다. 먹고살기가 힘들어 작은 일에도 터져버릴 듯 가슴 조이며 살고 있습니다.”

“니를 잘 길들여야 하는 기라. 요즘 사람들 보면 담담스님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는 거야.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는다는 전갈이 와서 뒤를 따라갔대. 그런데 도시락까지 메고 가던 아들이 학교 옆 골목에 들어가더니 냇가로 바래 입고 나오더라는 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 길에 절에 와서 울었던 거지. 청담 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소연을 했지. 그때 스님이 ‘보살은 뭐하는가’고 물었어. 보살 말이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활동 열심히 한대. 거사는 회사 다니고 살림은 전정어머니가 한다는 거야. 그때 청담 스님이 ‘제 살림도 못하면서 무슨 봉사냐’며 불호령을 내리고 방담

가서 절하라고 했어. 일주일간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기도하라고 했지. 그러면서 공양주 불러놓고 ‘이 보살 밥 먹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누룽지도 줘서는 안된다’고 단도리를 했어. 보살이 그대로 법당에 가서 절을 계속 하는데 옛새를 뒀나 햇것이 보일만도 하지.

기도하던 보살 눈에 왕십리 역이 보이고 냇마아들이 서 있는 거야. 기도 마치고 역에 가니 정말 아들이 있더라네. 엄마를 본 아들이 껍짝 놀라더니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따라와서 잘못을 빌더라. 그래서 사람구실하게 됐지.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운 고비가 있는 것이야. 고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가 중요해. 내가 갈 길을 분명히 찾아서 갈 줄 알아야 해. 냇마아를 구해낸 보살처럼 몸을 돌보지 않고 노력(기도하면 뜻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가 사는 허공에는 그런 예너지가 충만해 있어. 다만 끌어다 쓰느냐, 못쓰느냐는 각자가 할일이지.”

지내놓고 보면 다사다난하지 않은 한해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지난 2004년은 유난히도 힘들었던 해였다. 모두들 “어렵다, 어렵다” 뿐이었다.

“스님, 경제가 어렵다보니 모두들 하루하루 생활에 지쳐갑니다. 먹고살기가 힘들어 작은 일에도 터져버릴 듯 가슴 조이며 살고 있습니다.”

“니를 잘 길들여야 하는 기라. 요즘 사람들 보면 담담스님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는 거야.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는다는 전갈이 와서 뒤를 따라갔대. 그런데 도시락까지 메고 가던 아들이 학교 옆 골목에 들어가더니 냇가로 바래 입고 나오더라는 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 길에 절에 와서 울었던 거지. 청담 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소연을 했지. 그때 스님이 ‘보살은 뭐하는가’고 물었어. 보살 말이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활동 열심히 한대. 거사는 회사 다니고 살림은 전정어머니가 한다는 거야. 그때 청담 스님이 ‘제 살림도 못하면서 무슨 봉사냐’며 불호령을 내리고 방담

가서 절하라고 했어. 일주일간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기도하라고 했지. 그러면서 공양주 불러놓고 ‘이 보살 밥 먹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누룽지도 줘서는 안된다’고 단도리를 했어. 보살이 그대로 법당에 가서 절을 계속 하는데 옛새를 뒀나 햇것이 보일만도 하지.

기도하던 보살 눈에 왕십리 역이 보이고 냇마아들이 서 있는 거야. 기도 마치고 역에 가니 정말 아들이 있더라네. 엄마를 본 아들이 껍짝 놀라더니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따라와서 잘못을 빌더라. 그래서 사람구실하게 됐지.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운 고비가 있는 것이야. 고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가 중요해. 내가 갈 길을 분명히 찾아서 갈 줄 알아야 해. 냇마아를 구해낸 보살처럼 몸을 돌보지 않고 노력(기도하면 뜻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가 사는 허공에는 그런 예너지가 충만해 있어. 다만 끌어다 쓰느냐, 못쓰느냐는 각자가 할일이지.”

지내놓고 보면 다사다난하지 않은 한해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지난 2004년은 유난히도 힘들었던 해였다. 모두들 “어렵다, 어렵다” 뿐이었다.

“스님, 경제가 어렵다보니 모두들 하루하루 생활에 지쳐갑니다. 먹고살기가 힘들어 작은 일에도 터져버릴 듯 가슴 조이며 살고 있습니다.”

“니를 잘 길들여야 하는 기라. 요즘 사람들 보면 담담스님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는 거야.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는다는 전갈이 와서 뒤를 따라갔대. 그런데 도시락까지 메고 가던 아들이 학교 옆 골목에 들어가더니 냇가로 바래 입고 나오더라는 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 길에 절에 와서 울었던 거지. 청담 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소연을 했지. 그때 스님이 ‘보살은 뭐하는가’고 물었어. 보살 말이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활동 열심히 한대. 거사는 회사 다니고 살림은 전정어머니가 한다는 거야. 그때 청담 스님이 ‘제 살림도 못하면서 무슨 봉사냐’며 불호령을 내리고 방담

가서 절하라고 했어. 일주일간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기도하라고 했지. 그러면서 공양주 불러놓고 ‘이 보살 밥 먹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누룽지도 줘서는 안된다’고 단도리를 했어. 보살이 그대로 법당에 가서 절을 계속 하는데 옛새를 뒀나 햇것이 보일만도 하지.

기도하던 보살 눈에 왕십리 역이 보이고 냇마아들이 서 있는 거야. 기도 마치고 역에 가니 정말 아들이 있더라네. 엄마를 본 아들이 껍짝 놀라더니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따라와서 잘못을 빌더라. 그래서 사람구실하게 됐지.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운 고비가 있는 것이야. 고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가 중요해. 내가 갈 길을 분명히 찾아서 갈 줄 알아야 해. 냇마아를 구해낸 보살처럼 몸을 돌보지 않고 노력(기도하면 뜻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가 사는 허공에는 그런 예너지가 충만해 있어. 다만 끌어다 쓰느냐, 못쓰느냐는 각자가 할일이지.”

지내놓고 보면 다사다난하지 않은 한해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지난 2004년은 유난히도 힘들었던 해였다. 모두들 “어렵다, 어렵다” 뿐이었다.

“스님, 경제가 어렵다보니 모두들 하루하루 생활에 지쳐갑니다. 먹고살기가 힘들어 작은 일에도 터져버릴 듯 가슴 조이며 살고 있습니다.”

“니를 잘 길들여야 하는 기라. 요즘 사람들 보면 담담스님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는 거야.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는다는 전갈이 와서 뒤를 따라갔대. 그런데 도시락까지 메고 가던 아들이 학교 옆 골목에 들어가더니 냇가로 바래 입고 나오더라는 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 길에 절에 와서 울었던 거지. 청담 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소연을 했지. 그때 스님이 ‘보살은 뭐하는가’고 물었어. 보살 말이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활동 열심히 한대. 거사는 회사 다니고 살림은 전정어머니가 한다는 거야. 그때 청담 스님이 ‘제 살림도 못하면서 무슨 봉사냐’며 불호령을 내리고 방담

가서 절하라고 했어. 일주일간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기도하라고 했지. 그러면서 공양주 불러놓고 ‘이 보살 밥 먹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누룽지도 줘서는 안된다’고 단도리를 했어. 보살이 그대로 법당에 가서 절을 계속 하는데 옛새를 뒀나 햇것이 보일만도 하지.

기도하던 보살 눈에 왕십리 역이 보이고 냇마아들이 서 있는 거야. 기도 마치고 역에 가니 정말 아들이 있더라네. 엄마를 본 아들이 껍짝 놀라더니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따라와서 잘못을 빌더라. 그래서 사람구실하게 됐지.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운 고비가 있는 것이야. 고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가 중요해. 내가 갈 길을 분명히 찾아서 갈 줄 알아야 해. 냇마아를 구해낸 보살처럼 몸을 돌보지 않고 노력(기도하면 뜻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가 사는 허공에는 그런 예너지가 충만해 있어. 다만 끌어다 쓰느냐, 못쓰느냐는 각자가 할일이지.”

지내놓고 보면 다사다난하지 않은 한해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지난 2004년은 유난히도 힘들었던 해였다. 모두들 “어렵다, 어렵다” 뿐이었다.

“스님, 경제가 어렵다보니 모두들 하루하루 생활에 지쳐갑니다. 먹고살기가 힘들어 작은 일에도 터져버릴 듯 가슴 조이며 살고 있습니다.”

“니를 잘 길들여야 하는 기라. 요즘 사람들 보면 담담스님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는 거야.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는다는 전갈이 와서 뒤를 따라갔대. 그런데 도시락까지 메고 가던 아들이 학교 옆 골목에 들어가더니 냇가로 바래 입고 나오더라는 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 길에 절에 와서 울었던 거지. 청담 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소연을 했지. 그때 스님이 ‘보살은 뭐하는가’고 물었어. 보살 말이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활동 열심히 한대. 거사는 회사 다니고 살림은 전정어머니가 한다는 거야. 그때 청담 스님이 ‘제 살림도 못하면서 무슨 봉사냐’며 불호령을 내리고 방담

가서 절하라고 했어. 일주일간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기도하라고 했지. 그러면서 공양주 불러놓고 ‘이 보살 밥 먹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누룽지도 줘서는 안된다’고 단도리를 했어. 보살이 그대로 법당에 가서 절을 계속 하는데 옛새를 뒀나 햇것이 보일만도 하지.



보성 스님은 추운 날씨에도 대중들에게 동참하고 포행을 하며 화두를 놓지 않는다.

어, 평생을 길에서 밧어먹는 걸사였어. 비 새면 천막으로 덮으면 되지. 괜히 절 고쳐주는 척 하면서 밧 밧어먹으려만 나가라고 해. 설령 절이 비어도 그런 이들이 절에 있으면 안돼. 지난번 태풍 때 산중의 스님이 하나 와서 며칠 굶었다고 사정했던 일이 있지. 전기도 끊어지고, 가스도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호풍을 썼지. ‘중이 절에서 밧어 먹었으니 절이 다 망한다. 당장 나가그래. 산에는 풀러 가는 물도 없고, 나무도 없드나.’

어했거나 승속을 떠나 모두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아. 이웃사람 눈치 볼 것 없이 자기일 자기가 하고 살면 돼.”

요즘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러한가 곰곰 따져보면 이구동성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풍족했다’고 말한다. 있다가 없으면 힘든 것이 인지상

## 검소한 살림살이 본 것만으로도 큰 공부

### 독자 가족과 함께 만난 보성 스님

조계종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친견에는 광주에 사는 천달 정성택 거사(46)와 해소 박상순 보살(40) 부부, 보덕행 김수자 보살(50)과 고경민(대3) 민정(중3 상필(초등4) 등 세 자녀 그리고 모친 연화월 장금옥 보살(72)이 동행했다.

스님방인 ‘길상헌’에 들어서자 한눈에 무소유하는 스님의 살림살이를 볼 수 있었다. 벽에는 가사, 장삼만 걸려있고 경상에는 책들이 가지런하게 놓여있었다. 그밖에 있는 물건이라고는 전화기 뿐이었다. 근래 일으킨 책인 듯 위쪽에 <진각각서 어록 역해>가 놓여 있고 달라이 라마의 <용서>와 티베트 수행서 <달림>도 눈에 띄었다.

스님은 “절은 공원이 아니라 수행하는 이들이 공

부하는 곳이다”고 운을 뗐다. “자신을 점검해 보면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듯 조곤조곤 말씀을 이어갔다.

한참 이야기를 하던 스님은 “방바닥이 뜨끈하게”하면서 “몸이 여기저기 고장 나서 방에 불을 넣었다”며 도리어 미안해했다.

큰스님 친견을 마치고 천달거사 내외는 “살아가면서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번 알게 됐다”며 “검소하게 사시는 스님을 본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되었다”고 말했다.

보덕행 보살 자녀들도 “큰스님이라고 해서 엄한 분인 것 같아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할아버지처럼 자상하게 대해줘서 편했다”며 “스님 말씀대로 좋은 버릇 길들이며 자신에게 ‘무자’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와 의정등록 다수 보유업체 ◆

**팔모점등**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팔모조립등**

보관상태

**공단등 (비단등 실크등)**

**종 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출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



보성 스님은 정성택 거사(오른쪽 첫번째) 부부의 김수자(네번째) 보살 가족 등 독자들의 질문에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가며 자상하게 설명했다.

정(人之常情)이다. 방장 스님은 결국 "스스로 이겨내겠다"는 각자의 마음이 문제라는 결론이다. 그러면서 방장 스님은 "사람마다 길 길이 있고, 남에게 묻지 않는 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회사가 다니는 천달 거사도 역시 현재의 사회가 격정이다.

"근래 들어 가정파괴 현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는 하면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일도 자주 일어납니다. 불자로서 안타깝고 마음을 내어보건만 더욱 충격적인 일들이 늘어갑니다."

"자연은 순리가 있어. 그것을 거역하면 문제가 생겨요. 사람도 순서를 벗어나 억지로 하면 문제가 일어나지. 만남도 그러해. 억지로 만나면 얼마못가서 갈라서기 마련이야. 원고 하면 욕심을 버려야 해. 허욕을 절제하는 번뇌방삼이라 하제. 요것에 빠져 기어코 끌고 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고집'이야. 고집이 바로 금강경에 나오는 아집이고 아상이야. 아상이 없으면 문은 다 열리는 거여. 요세 사람들 공부해야 해, 그리고 공부하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해. 그래서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하지. 그랬을 때 '복과 지혜'를 갖춘 이가 되는 거라."

별교에 사는 보덕행 보살의 모친 연화월 보살은 4남매를 다 키우고 이제는 손자를 키우는 모습을 낙으로 삼아 살고 있다. 수없이 찾았던 큰 절이건 반 방장 스님 앞에 나서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큰스님 방에 함께 했다.

술한 세월을 두고 방장 스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으면 그것이 무엇일지 자못 궁금했다.

"나이 70이 넘으니 주위에 떠나는 이들이 많습디다. 혼자되는 이들을 보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싶습니다.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염려스럽습디다."

"이제 자기 일 하세요. 아들 딸 걱정 말고, 평소

있다가 없으면 힘드게 당연

순리에 따라 욕심버리고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던 염불 있으면 열심히 해요. 얼마 전에 98세 된 노보살이 몸을 바꿨어요. 만나면 항상 '염불 잘 하세요' 하면 '잘 합니다' 그래요. 하루는 며느리에게 '너그 사이머니 어찌노' 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침마다 하루 먹을 밥과 반찬만 밥에 넣어드리고 밖으로 뭏나오게 밖에서 문을 잠가버린다고 해요. 왜 그런고 하니 하루종일 염불하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요. 얼마 전까지 노보살 만나면 그러죠. '그래 할망, 친구 좀 있소' '친구 많이 있어요' '무슨 친구가 그리 많노' '아미타 친구요' 노보살은 평소 '추잡한 것 보이지 않고 갈판다'고 해요. 하루는 아들이 출근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인기가척이 없어요. 여기저기 훑다보니 화장실에 앉은 채 고개 푹 숙이고 있더라고. 미지까지 더러운 것을 번기에 버리고 갔던 거요. 보살님도 앞으로 그리 해요." 노보살을 향해 "옆 사람에게 거북하게 하지 말고, 아들딸이 죽이라도 끊어주면 그저 고맙다고 받고 내 할일 하고 간다는 생각으로 염불하라"고 당부하던 스님은 성에 차지 않지 않지 열불이야기를 하

나더 덧붙인다. "내 집안에 평소 욕을 잘하는 형수가 있어요. 이놈의 할망구가 입만 벌리면 어찌 욕을 하든지 아들 딸, 사위가 힘들어해요. 하루는 애들이 나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요. 그래서 할망구를 불러다 하루에 아미타불 3만독씩 하라고 했어요. 하루 3만 독 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말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하겠'고 해요. 한 3년 열심히 하니 그다음은 이웃사람이 와서 시비를 걸어도 대꾸를 안 해요. 염불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들보고 오라하더니 아들 무릎을 베면 시원하겠다고며 누웠지요. 아들이 어머니 머리를 쓰다듬다보니 이상하더라고. 그대로 간 것이죠."

평소 학인스님들 사이에서는 사나운 사자와 같은 방장스님이건만 재가불자들에게는 자상한 할아버지가 되셨다. 스님은 보덕행 보살 딸들에게 경상에 넣어드리고 밖으로 뭏나오게 밖에서 문을 잠가버린다고 해요. 왜 그런고 하니 하루종일 염불하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요. 얼마 전까지 노보살 만나면 그러죠. '그래 할망, 친구 좀 있소' '친구 많이 있어요' '무슨 친구가 그리 많노' '아미타 친구요' 노보살은 평소 '추잡한 것 보이지 않고 갈판다'고 해요. 하루는 아들이 출근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인기가척이 없어요. 여기저기 훑다보니 화장실에 앉은 채 고개 푹 숙이고 있더라고. 미지까지 더러운 것을 번기에 버리고 갔던 거요. 보살님도 앞으로 그리 해요."

노보살을 향해 "옆 사람에게 거북하게 하지 말고, 아들딸이 죽이라도 끊어주면 그저 고맙다고 받고 내 할일 하고 간다는 생각으로 염불하라"고 당부하던 스님은 성에 차지 않지 않지 열불이야기를 하

승광사=이준엽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지연 스님의 스님이야기

소천 스님

스님은 82세였다. 승려생활은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3년여를 가부좌를 틀고 앉고 계셨다. 노구를 건디며 앉아 있는 후유증으로, 스님은 등부에 창이 생겼다. 고생이 많지 아니었다. 그러나 스님은 앉아 있기를 고집했다. 멈추지 않았다. 눈물겨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

그 무렵이었다. 거동이 불편한데도 스님은 오후 두 세 시쯤에 아무도 모르게 방을 빠져나가 창고 쪽으로 겨우 걸음을 옮기시곤 했다. 나는 조심 조심 뒤를 밟았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창고 안에는 도둑고양이가 새끼를 서너 마리 낳아 품고 있었는데, 스님은 한 시간 가량 웅크리고 앉아 새끼 고양이들을 지켜보았다. 아주아주 자비로운 모습으로, 아주아주 사랑스러워 어쩔줄

>에 깊이 빠져들었다. 심취했다. 23세 때 서울에서 3·1 독립운동에 참가한 뒤 북간도로 탈출, 김좌진 장군 휘하에 머물다 다시 북경 등지를 거쳐 국내에서 활동했다. 일경의 추적을 받아 산중 암자에 피신, 이후부터 불교연구와 구국 구세원리의 선양에 전념했다.

소천 스님은 39세 때 <금강경강의>를 처음으로 간행, 여러곳에서 설법하며 수많은 병자들을 한 자리에서 고친 적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때부터 세간에선 스님을 일러 '신법사스님의 속성이 신씨대'라 부르며 칭송했다. 8·15 광복을 파주의 조그만 토굴에서 맞은 뒤 귀토 분당과 좌우의 대립으로 민족이 누란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고자 '바른 정신' '독립의 날' 등 수천 때에 달하는 원고를 집필했으나 출판을 보지 못했다.

스님은 54세 때 6·25 전쟁을 맞아 부산으로 이주했다. 그리고 또다시 56세 때 급정신 병에서 응성 선사를 은사로, 동선 선사를 겸사로 하여 출가했다. 시냇밭로 늦깎이 중의 늦깎이였다.

스님은 <금강경강의>를 재간하고, <금강경독송



그림·문병성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스님은 거의 매일 같이 일과처럼 반복했다. 아무도 모르게 반복되는 스님의 밀행(密行).

아마도 누가 알면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들에게 해가될까 저어해서 그러시는 모양이었다. 소천(師) 큰스님의 이런 모습은 도둑고양이가 새끼들을 데리고 그곳, 은신처였던 창고를 떠 나갈 때까지 계속 이어졌으리라 생각한다.

사랑스런 손주들을 바라보듯, 따사로운 햇볕 고운 오후의 한 때를 골라 일과처럼 창고 쪽을 오고가던 스님의 모습이 새삼 광막을 스친다.

병든 노구를 이끌고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때 놓으시며 주위를 경계하며 창고 쪽을 오고 가시던 소천 노스님. 그즈음 나는 삼년째 노스님을 시봉하고 있었다. 인연 보라사에서였다.

정화교단 초대 교무부장과 서울 대각사, 경주 불국사, 구례 화엄사 주지들을 역임하며 호법·구국운동을 전개하시다가 69세 무렵에 보라사에 주석하시면서 사무를 일신하고 참선과 교화 운동에 전념하셨다.

소천 스님의 행장은 특이하다. 15세 때 서울 종로에 있는 한남서림이란 책방의 주인으로부터 우연히 <금강경>을 전해 받은 뒤로 스님은 <금강경

82세때도 가부좌 틀고 정진 금강경강의 일인자로 꼽혀

구국원력대'를 조직하여 구국 구세 호법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72세때 활화산 같은 원력으로 <원각경강의> <반야심경강의> 등을 차례로 간행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금강경을 독송하자. 나라를 구하는 것은 곧 내 집을 구하는 것이며 내 몸을 구하는 것이며 내 마음을 구하는 것이 된다. ... 금강경을 독송하면 왜 나라가 구해질까? 금강경은 모든 유위법(물질), 무위법(진리)이 나온 곳이며 그로 하여 병든 나라와 정신을 깨끗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천 스님께서는 '금강경독송 구국원력대의 외침'이란 글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노후의, 그분의 좌선에 대한 집착과 그로 인해 얻은 참혹한 병고의 시달림, 그런 속에서도 놓지 않던 탐구애의 열정.

소천 스님은 팔십 평생을 마치 쇠가보다 부처님처럼 길에서 보냈다. 만주와 북경, 서울과 심산의 토굴을 전전하며 구도와 구국 구생(求生)의 일념으로 물흐르듯 살아왔던 그야말로 수행남자였다. 파란만장했던 소천 스님, 그분의 행장이 지금 이 시점에서 새삼 되돌아 보일은, 끝결처럼 아련하게 떠올라 읊은 무순 연유에서일가.

병든 노구를 이끌고 도둑고양이가 새끼들을 품고 있는 창고로 들어가 한 시간 가량 웅크리고 앉아 지켜보곤 하던 82세의 어느 날, 햇볕 고운 어느 날 스님은 입적하셨다. 스님의 육신은 다비되어 본사인 금정산 범어사 부도전에 모셔졌다. 거기, 부도전 한쪽에 고이 모셔졌다. ■봉화 청량사 주지

**세계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의 소리와 문양!**  
- 해외로 수출되는 우리의 범종 -

한국 최초의 범종제작사로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종사는 지난 2002년 충북 진천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 20000만까지 제작 가능한 세계 최대의 주조설비를 갖추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최대의 범종제작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종사의 명성이 國內은 물론 海外까지 알려져,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직접 日本, 中國, 臺灣, 싱가포르, 美國,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우리의 범종을 수출하는 등 국제시장에서도 탁월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최대인 광주 민주의 종(8150관) 제작중)

**성종사 범종만이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리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한 성종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경묘한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 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할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 4. 국내 최고 칙삭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에 흑색 페인트칠을 했던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치료를 실시함으로써 관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덕리 406-28 www.sungjongs.co.kr E-MAIL : sungjongs@hotmail.com

2005년 新/製/品  
**스님用 滿行靴**  
본 제품은 수제화로 특수 제작되었습니다.

■ 색상 : 회색  
■ 규격 : 215~290(mm)  
■ 특별 보급가 ₩ 60,000

■ 만행화(滿行靴) 탈신 단면도

● 곡세사 방수원단 ● 보아필  
● 논스립 특수우레탄

■ 만행화(滿行靴) 탈신 특징

- ① 발, 볼, 등 감안스님 치수에 맞도록 수제화로 제작하였습니다.
- ② 겨울 동철기에 냉기를 차단하는 특수 비덕창 논스립 우레탄 소재로 제작 하였습니다.
- ③ 외부소재 곡세사 천연 방수 원단으로 내부에는 특수털로 내장 제작 하였습니다.

※ 스님, 도반님께 선물용으로 참 좋습니다.

CHOICE (주)초이스제화 www.choiceshose.co.kr  
www.choiceshose.co.kr

만행화 www.manhaenghwa.co.kr  
주문전화 TEL : (02)927-5715  
H.P : 011-9000-5715  
동철 063-12-250427 예금주 구지민